

Judith Schalansky

Der Hals der Giraffe

Sample translation by Yang-gyu Park

Sample translation of the first chapter “Naturhaushalte”, pp. 7-12.

Korean sample translation copyright: © Yang-gyu Park 2011

유디트 샬란스키

기린의 목

교양소설

생태계

„앉아요.“ 잉에 로마르크 선생이 말하자 학생들은 자리에 앉았다. „7 페이지를 펴세요“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7 페이지를 폈고, 곧 이어 생태계와 생태적 균형, 종(種)들간의 상호의존 관계로 넘어가서, 생물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군집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해 수업은 시작 되었다. 혼합림의 먹이망에서 산지의 먹이사슬로 넘어갔고, 강에서 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막과 갯벌에 대해 다루어졌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동물이나 사람 할 것없이, 어느 누구도 혼자 생존할 수 없어요. 생물들 간에는 경쟁이 지배하기 마련이지요. 또한 공동체란 게 가끔 있긴하지만, 그건 드문 일이지요. 공생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포식자와 포획물 사이의 경쟁 관계이지요.“

잉에 로마르크 선생이 칠판에 이끼류와 지의류, 균류에서 지렁이와 사슴벌레, 고슴도치와 뽕족뒤쥐까지 화살표를 그리고, 박새와 노루, 매까지 선을 연결한 다음 마지막으로 늑대까지 이어지는 화살표를 그리자 피라미드 도형이 생겨났고, 그 꼭대기 포획동물들 옆에다 사람을 두었다.

„사실, 독수리나 사자를 잡아먹는 동물은 없어요.“

그녀는 분필로 그린 넓다란 도형을 보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화살표 도형은 생산자가 일차, 이차 열의 소비자와 함께 묶여있고, 일,이, 삼차 소비자뿐만 아니라 호흡으로 엮어진 피할 수 없는 분해 미생물과 열의 손실과 바이오 메세의 증가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자연에는 그 나름의 체계가 있고, 설사 모든 생물이 그런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먹고 먹히는 그들 만의 법칙이 있었다. 그것은 대단했다.

„여러분, 공책에 쓰세요.“ 하면 학생들은 바로 행동에 옮겼다.

이제 막 학기가 시작되었다. 찌는듯한 더위와 민소매로 보냈던 유월의 불안함, 즉 햇빛이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교실은 찜통이 되었고 텅 빈 머리 속은 여름 방학에 대한 기대로 꿈틀거렸으며, 방학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하느라 집중을 못했고, 눈은 풀어지고, 피부는 번들거렸지만 자유를 향한 강한 열망만 남아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채 꾸벅꾸벅 졸던 시간은 벌써 지나갔다.

아이들 몇 명은 산만하거나 무관심했고, 다른 아이들은 곧 받게 될 성적표 때문에 착한 학생인 척, 죽은 쥐를 거실 카펫에다 내려놓는 고양이처럼 생물 평가서를 교탁 위에다

밀어놓았다. 다음 시간에는 소숫점까지 반올림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 계산기를 들고 몇 점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쏠려있었다.

하지만 잉에 로마르크 선생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학기말에 수업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서 무료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두려워 하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녀의 동료들은 아이들의 요구에 맞춰져야 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수업은 공허한 청취자 참여 형식의 연극이 되어 버렸다. 사려깊은 눈빛을 던지거나 쓰다듬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시시한 영화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웠다. 점수가 후해 A 등급이 넘쳐나는 대반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가망없는 경우에는 다음 학년으로 올리기 위해 학기말 성적을 사사오입하는 과잉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마치 누군가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다. 동료들은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들 자신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생의 에너지를 빼앗는 거머리와 다름 없었다. 교사들에게 기생(寄生)하고, 교사들의 능력문제나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겁을주면서 교사들의 피를 팔아 먹는 자들.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은 선생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하찮은 의견을 내놓고 또 지나치게 스스럼 없는 태도로 말이다. 그것은 더도덜도 아닌 흡혈귀였다.

잉에 로마르크 선생은 더 이상 피를 빨아먹지 못하도록 했다. 그녀는 조금도 노발 대발하지 않고 열쇠고리 몽치를 던지지도 않으면서, 고삐를 손에 쥐고 학생들을 엄격하게 다룰 줄 아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 가끔 달콤한 과자를 불쑥 던져주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말에게 씌우는 눈가리개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정말 가끔 소란해지면 더도 말고 칠판을 손톱으로 긁거나 개에게 붙어사는 촌충(寸蟲)에 대해 설명하면 된다. 학생들이 그녀의 손아귀에 놓여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다. 학생들도 뭔가 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대신에, 그녀의 수업시간에는 말할 권리도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아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연선택, 그것 뿐이었다.

학기는 이제 시작되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됐지만 그녀에겐 9월 1일인 오늘이- 올해는 월요일이다- 새해인 것이었다. 잉에 로마르크 선생은 새해의 계획을 선달 그름에 세우지 않고 여름의 끝 무렵에 했다. 그녀는 그녀의 수업 계획서로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이 늘 좋았다. 카운트 다운이나 샴페인 유리잔을 부딪히는 일 없이 그저 종이만 넘기면 되니까.

잉에 로마르크 선생은 머리를 꼼짝도 하지 않고 책상 세 줄을 건너다 보았다. 흔들림없는 전지전능한 눈빛처럼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완벽하게 갈고 닦은 기술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한 학급에 두명 정도는 늘 과목에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위험해 보였다. 정규 분포 곡선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학생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진급을 할 수 있었을까?

학생들의 얼굴에는 6 주의 여름 방학동안 빈둥거린 흔적이 보였다. 단 한권이라도 책을 펴 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길고 긴 여름 방학. 옛날 만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 방학! 학생들을 다시 학교 바이오 리듬에 적응시키려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것이다. 그녀는 학생들의 방학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새로 맡은 반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는 슈바네케 선생에게 얘기하면 되었다. 삼십분 뒤에는 전 학급이 빨간 양모 솜뭉치로 엉켜 있고 옆에 앉은 짝의 이름과 취미를 말할 수 있다.

자리는 드문드문 채워져 있었다. 학생들 수가 얼마나 적은지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자연 연극에 비해 관객수는 너무나 보잘것 없었다. 열 두명이었다. 남학생 다섯 명과 여학생 일곱 명. 열 세번 째 학생은 슈바네케 선생이 보충 수업과 가정 방문 그리고 상담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서 애를 썼는데도 다시 기술학교로 되돌아갔다. 집중력 문제였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누구나 말하는 성장 발육 장애. 처음엔 난독증, 나중엔 계산 불능증. 다음엔 또 무엇이 올 것인가? 생물에 대한 알레르기? 옛날엔 그저 운동 신경이 둔한 아이와 음악적 소양이 없는 아이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달려야 했고 노래를 같이 불러야만 했다. 모든 건 의지의 문제였다.

뒤처지는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타고난 상습범들. 학급의 건강한 학생들의 몸에 기생하는 존재들이었다. 성적이 불량한 학생들은 조만간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었다. 실패할 때마다 매번 기회를 다시 주는 것보다 가능하면 일찍 사실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무엇때문에 이런 기만을! 누구나 다 잘 할 수는 없었다. 또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실패자는 매 학기마다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미덕을 가르친 것으로 효과를 봤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다. 예의바름과 시간 지키기

그리고 위생관념.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가 없어진 것은 정말 유감이었다. 질서와 규칙, 성실성, 협동심, 자세. 이것은 교육 시스템의 결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실패자를 늦게 걸러내면 날수록 실패자 자신을 점점 더 위협에 빠뜨린다. 그는 처음에는 학급의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억지 요구를 하는 걸로 시작한다. 예를들면 학기말에 번듯한 성적과 긍정적인 추천서를 요구하고 나아가 보수가 좋은 일자리나 행복한 삶까지도 요구했다.